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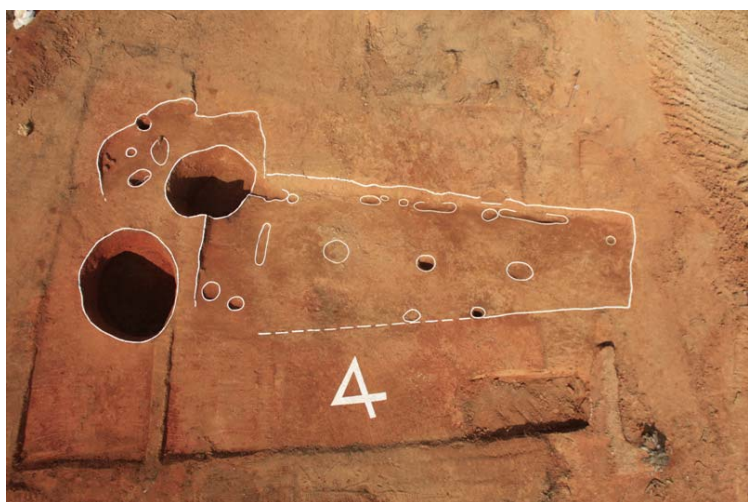


www.crich.or.kr

▶▶▶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지내(3-1지점)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

당진 성산리 유적 추가 범면구간 및 성산리 유적(3-1지점)

약보고서



2011. 10

(財)忠淸文化財研究院

조사개요

01

당진
성산리
유척

1. 조사명 :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지내 추가 법면구간 발굴조사
2. 조사지역 :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성산리 일원
3. 조사면적 : 126㎡
4. 조사기간 : 2011년 10월 12일~2011년 10월 31일(추가현장조사 6일)
5. 조사기관 : (재)충청문화재연구원
6. 의뢰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7. 조사경과
 - ◆지표조사 : 2008년 1월 28일~2008년 5월 6일<11,999,126㎡,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시굴조사 : 2008년 12월 18일~2009년 4월 11일<218,486㎡,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발굴조사 : *1차-2009년 6월 8일~2010년 4월 30일<현장조사 292일>
*2차-2010년 6월 15일~2011년 3월 31일
 <발굴조사:32,864㎡, 법면시굴:19,833㎡, 현장조사 198일>
 *법면 발굴조사 및 성산리 산성 표본조사-2011년 4월 1일~2011년 7월 7일
 <발굴조사-6,356㎡, 표본조사-10,216㎡/204㎡, 현장조사 71일>
 *추가 법면시굴-2011년 9월 5일~9월 17일<3,458㎡현장조사 8일>
8. 조사단구성

조	사	단	장	박영복(충청문화재연구원 원장)
책	임	조	사	원 나건주(충청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부장)
조	사	원	원	윤정현(충청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원)
준	조	사	원	남현정(충청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원)
보	조	원	원	전민경(충청문화재연구원 조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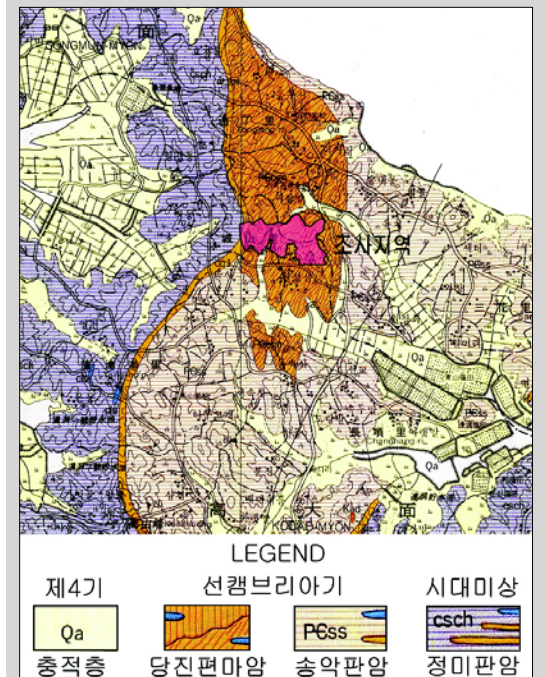
조사지역 위치 및 환경

이번 조사는 당진군 고대면·석문면 일원에 조성예정인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앞서 진행하는 문화유적 발굴조사이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당진군은 충청남도의 서북쪽 최북단에 자리하며, 북쪽으로는 아산만을 넘어 경기도 평택시와 마주하고, 동쪽에는 아산시, 남서쪽에는 서산시·예산군과 접해 있다.

당진군의 남쪽일부에만 아미산(349m)·다불산(310m)등과 같은 산지지형이 형성되어 있고, 북쪽에는 대체적으로 낮은 구릉지대 주변으로 곡저평야가 발달하였다. 조사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한 대호방조제와 석문방조제 일대에는 간척사업을 통해 농경지를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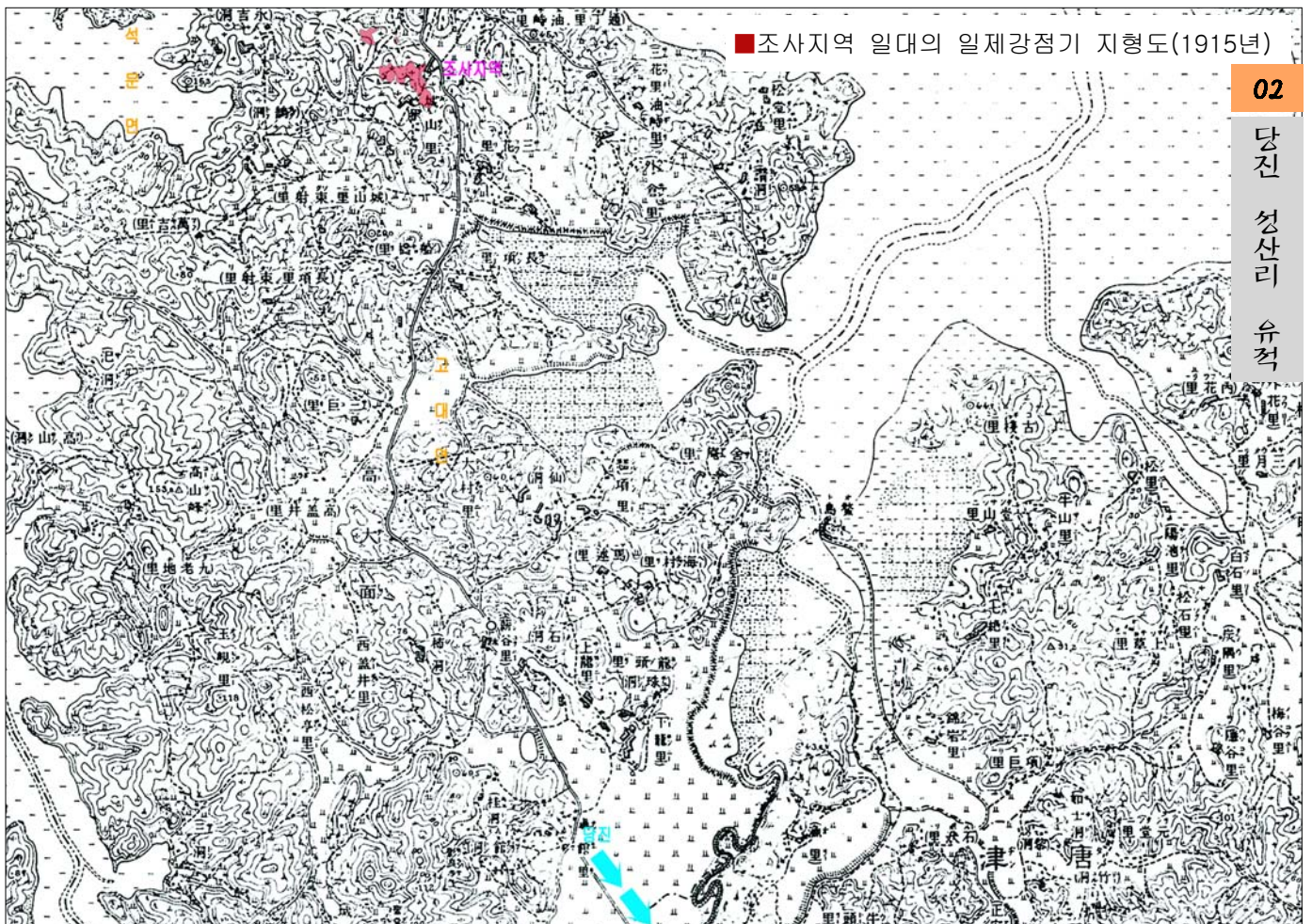
조사지역의 동쪽에는 주요 하천인 당진천이 오도항·보덕포 일대를 지나서 석문호로 유입된다. 당진천의 지천으로는 남쪽 산지에서 발원한 시곡천·역천·백곡천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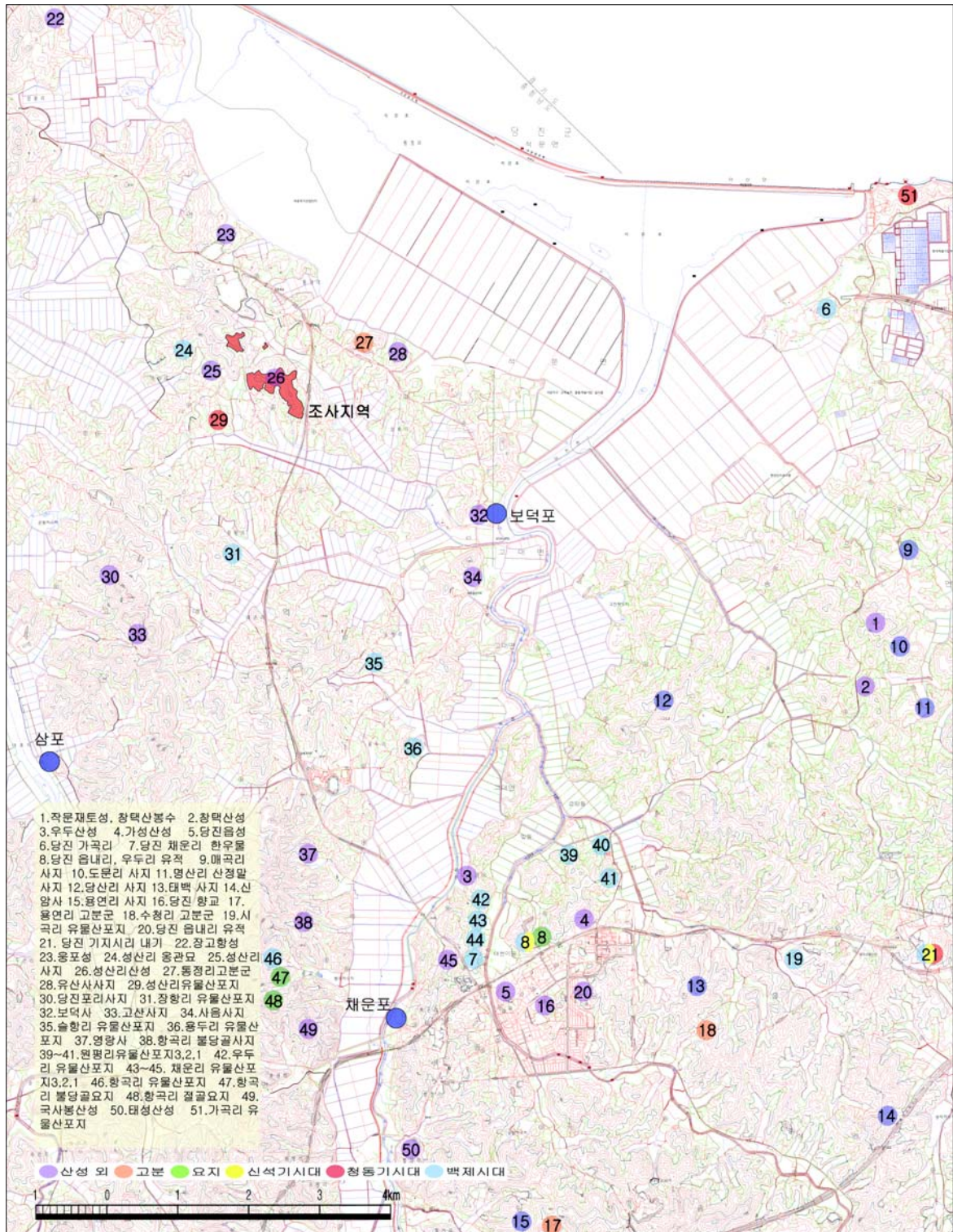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당진군의 북단에 위치한 낮은 구릉 일대에 해당하며, 구릉 주변의 충적지에는 구획된 농경지 주변으로 크고 작은 농수로로 조성하였다. 농수로로 유입된 물은 소하천을 지나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보덕포나루터에서 당진천으로 유입된다.



▲ 조사지역 일대의 지질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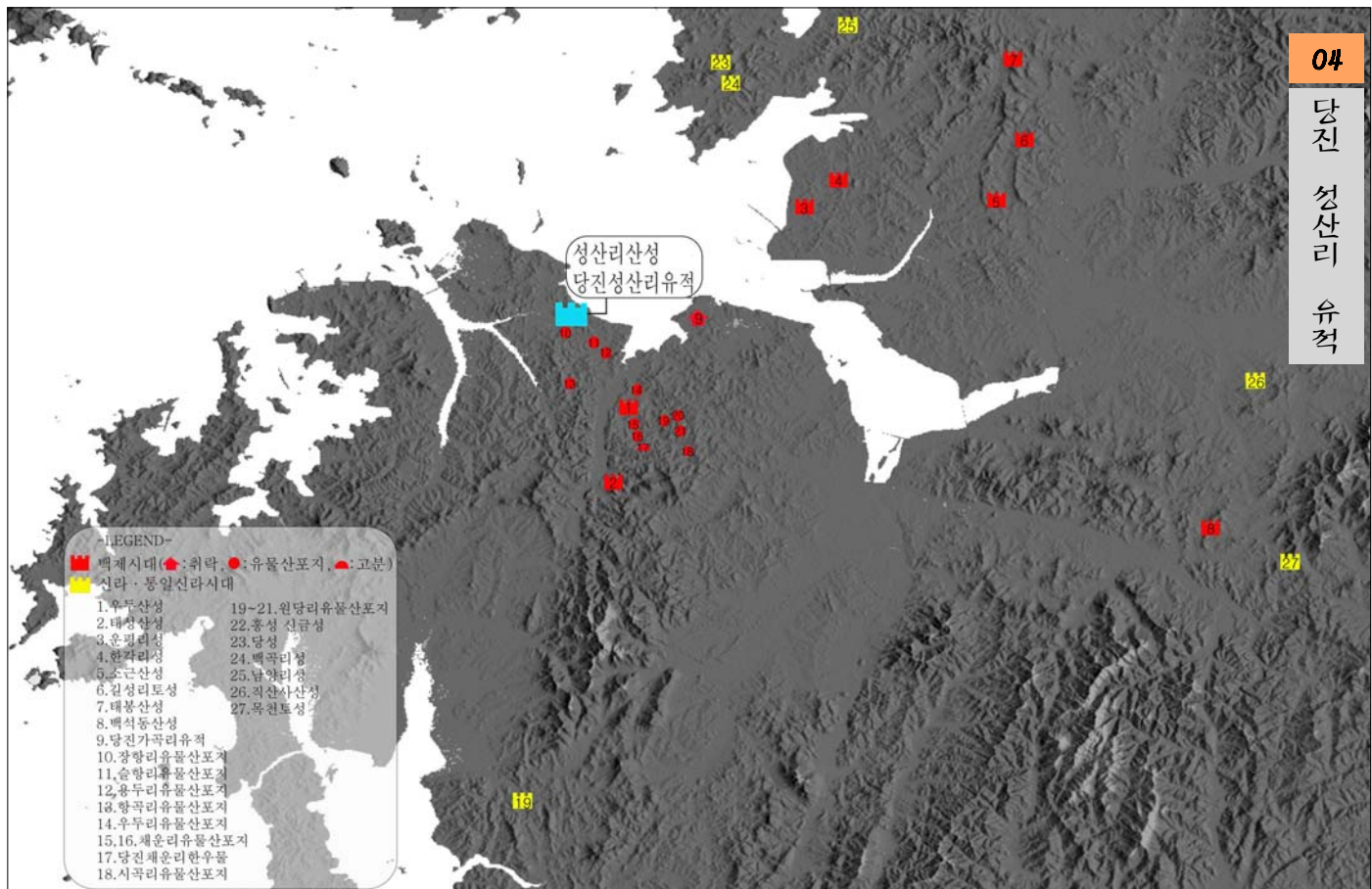
: 조사지역의 지질구조를 살펴보면, 형성시대미상의 정미판암과 선캄브리아기의 송악판암 사이에 당진편마암이 남-북 방향으로 좁은 지역에 형성되어 있다. 구릉 사이의 곡부에는 제4기 층인 충적층이 발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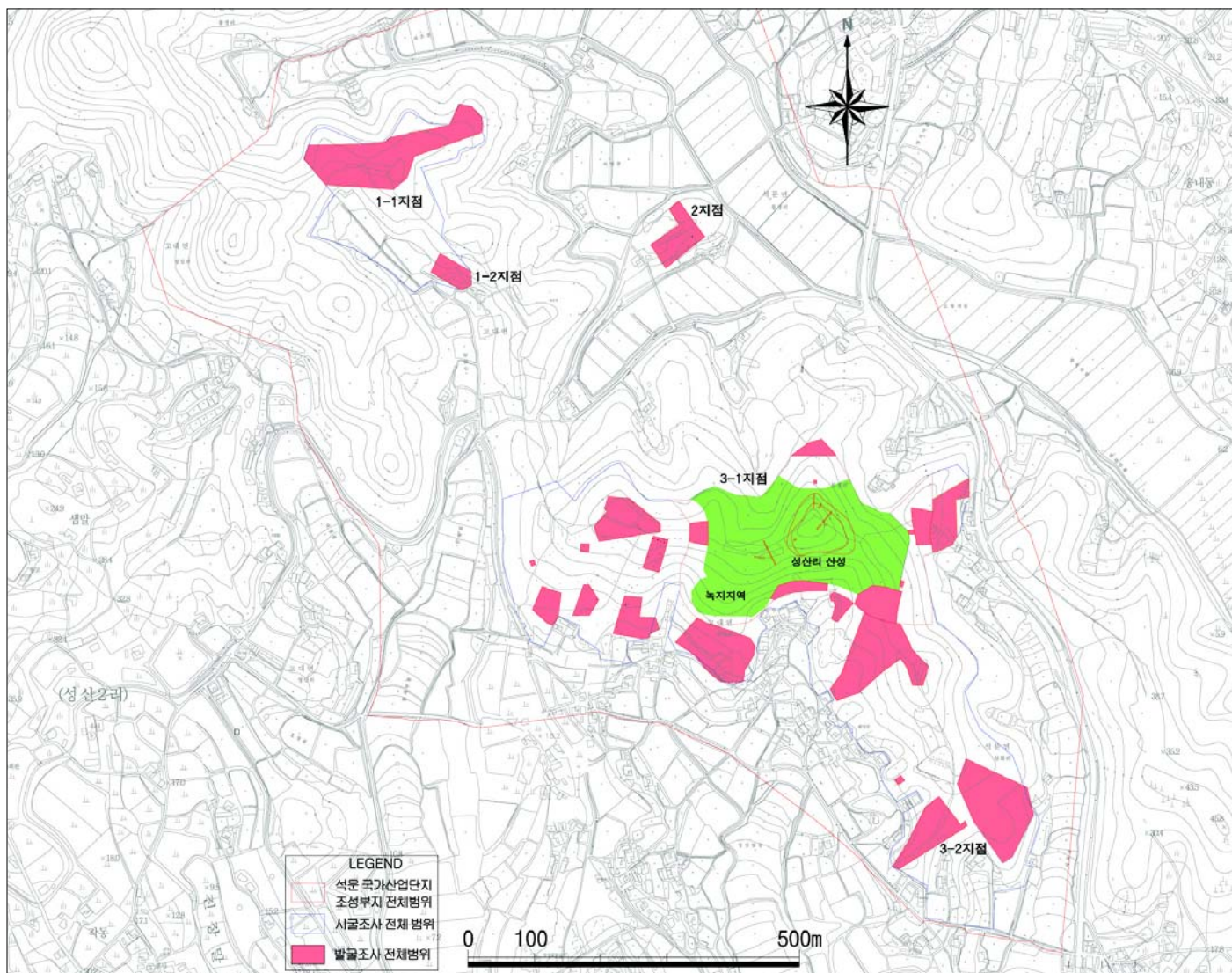


▲ 조사지역 주변의 유적분포도(S=1:7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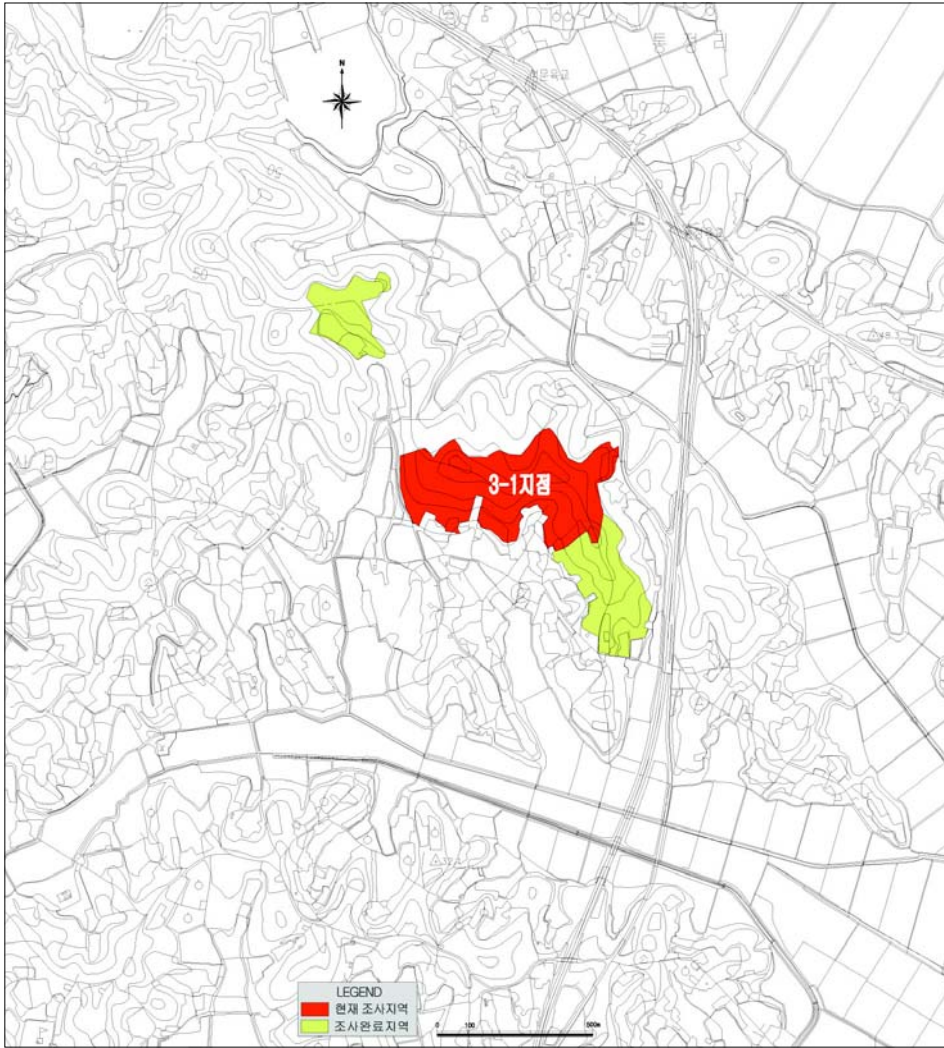
조사지역 주변에서는 현재까지 선사~역사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이 조사되었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읍내리·우두리 일대에서 주거지와 야외노지가 조사되었고, 기지시리 내기 유적에서도 평면형태 방향의 주거지 1기와 평면형태 원형의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기존에 자개리 유적을 통해 당진 지역에서 대규모 취락의 존재가 보고된바 있으며, 최근에는 성산리 유적 1·2차 조사에서도 주거지와 수혈유구로 구성된 청동기시대 취락이 조사되었다. 또한 기지시리 내기 유적에서도 이와 동시기의 취락이 확인되었다. 한편 원삼국~백제시대유적은 취락 및 분묘의 조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지시리 내기 유적에서는 원삼국시대 주거지 2기와 구상유구 1기가 조사되었고, 가곡리 유적, 원당리 유적, 성산리 1·2차 유적에서 주거지로 구성된 취락유적이 확인되었다. 백제시대 분묘유적은 성산리 1차 원성산 유적과 채운리 유적에서 각각 토광묘와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성산리 유적의 북쪽에서는 발굴조사에서 백제시대 성으로 밝혀진 길성리 토성 등이 위치하며, 동쪽에는 백성동 토성이 자리한다. 성산리 유적의 남쪽 인근에는 우두산성과 태성산성 등이 확인되나 대부분의 성곽이 발굴조사 없이 토기 채집 등으로 연대가 비정되고 있어, 주변 성곽의 연대는 향후 발굴조사 여부에 따라서 변동이 예상된다.



▲당진 성산리 유적 주변 백제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유적 분포도



▲당진 성산리 유적 전체 위치도(S=1:10,000)



조사지역 및 주변 지형

조사지역은 해발고도 20~67m 정도의 구릉지와 사면부에 해당한다. 유적이 위치한 저구릉은 북서-남동방향으로 연결되며, 구릉 사이 저지대에는 곡저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유적은 구릉지와 사면부를 중심으로 자리하며, 모두 461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1지점:청동기시대 주거지 49기·수혈 27기, 조선시대 토광묘 8기 등 91기.

◆2지점: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 고려시대 무덤 1기, 조선시대 주거지 6기, 조선시대 무덤 4기, 구상유구 1기, 시대미상 수혈 4기 등 20기.

◆3-1지점:청동기시대 38기·수혈10기, 원삼국시대 주거지 4기·수혈1기·구상유구 1기, 백제시대 주거지 35기·수혈 34기·소성유구 2기, 무덤 1기·산성 1개소, 고려~조선시대 이후 건물지 5기·주거지 67기·소성유구 4기·삼가마 1기·분묘 28기 등 247기.

◆3-2지점:백제시대 주거지 8기·무덤 9기, 고려시대 무덤 3기, 조선시대 주거지 2기·무덤 83기 등 110기.

법면구간 발굴조사

조사내용

1-1·2지점은 성산리 유적의 북쪽 구릉 상부에 위치한다.

05

당진
천산리
유적

2지점은 1지점에서 동북쪽으로 분지된 해발고도 20m 정도의 저구릉 선단부에 해당한다.

3-1지점은 원성산 유적의 북쪽에 위치한 구릉지 및 사면부이다. 3-1지점에는 원삼국~백제시대 취락이 사면부 전반에 형성되어 있으며, 유적의 중심산지 상부에는 성산리 산성이 자리한다.

3-2지점은 성산리 유적의 남동쪽 말단부에 자리한다.



1-1·2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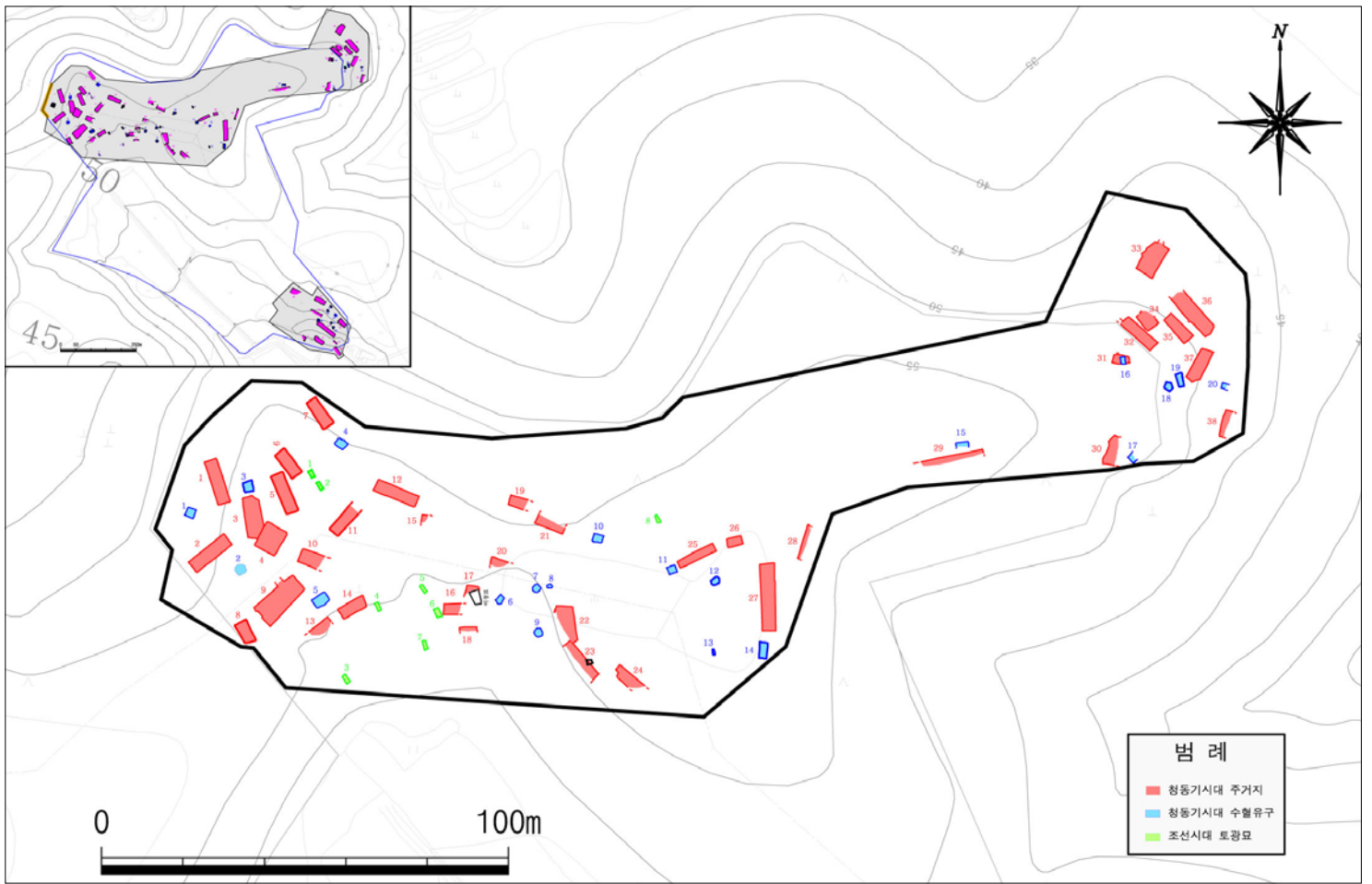
2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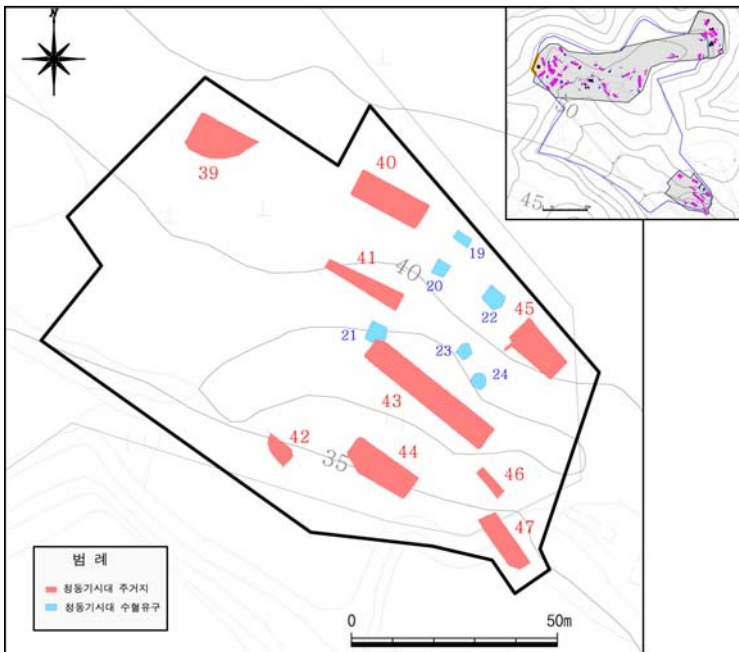
3-1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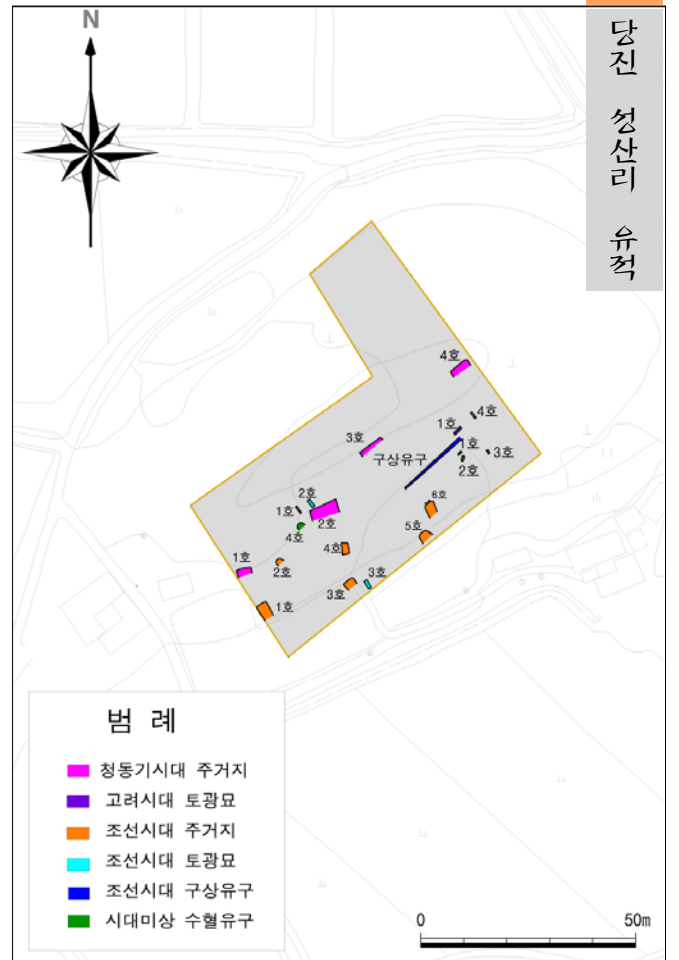
3-2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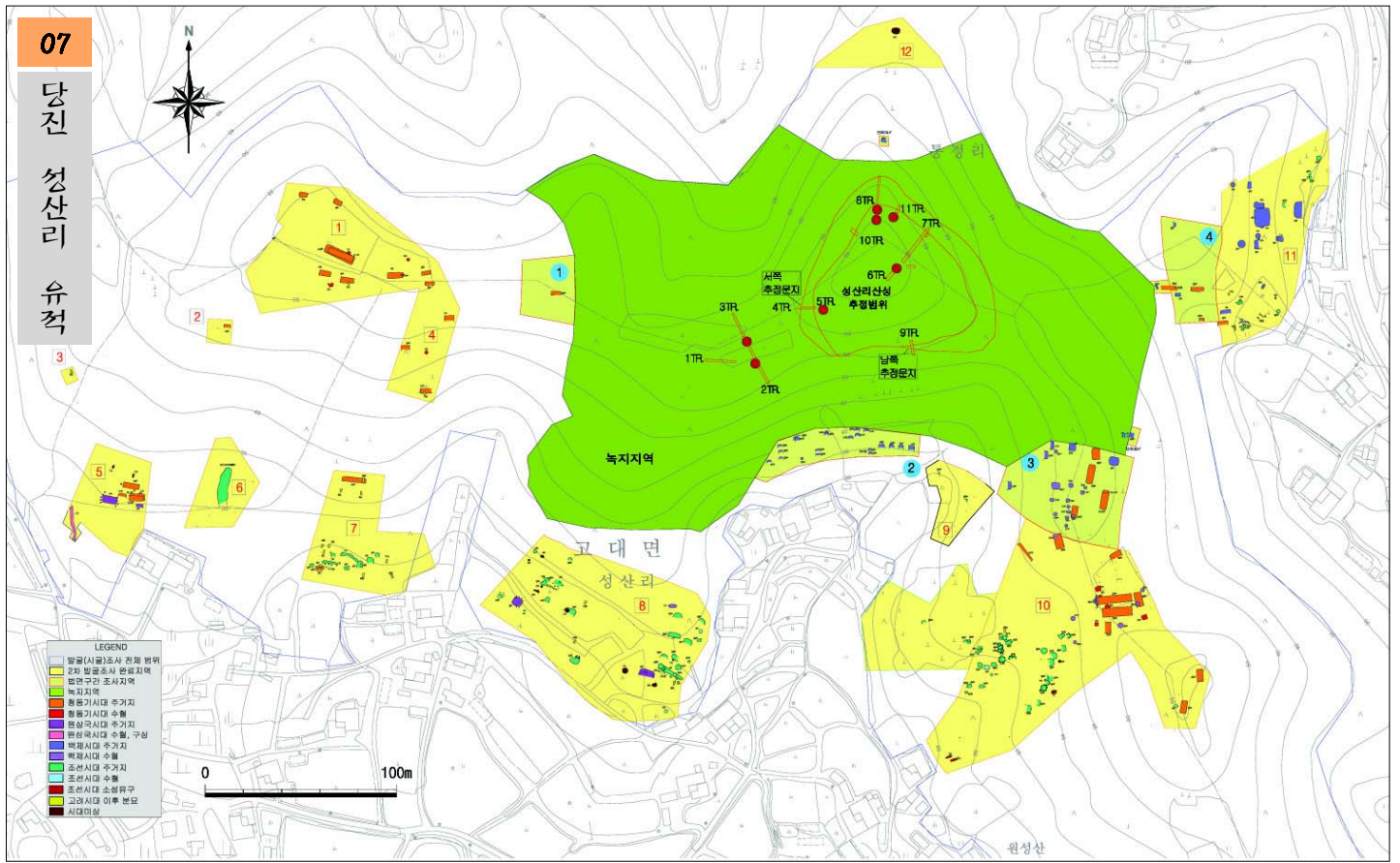
▲1-1지점 유구배치도(S=1: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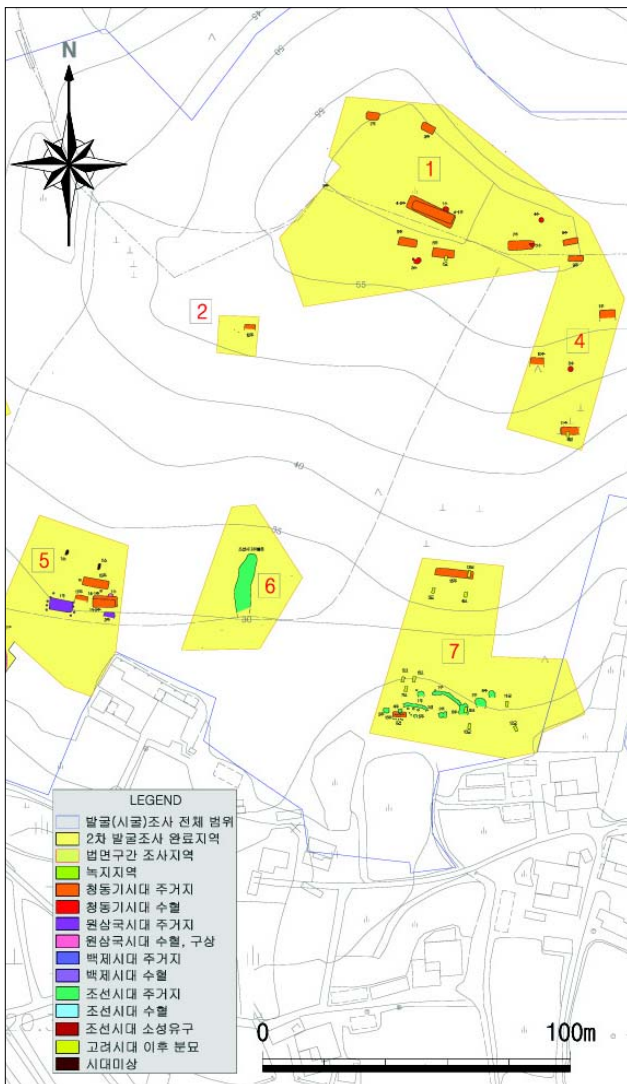
▲1-2지점 유구배치도(S=1: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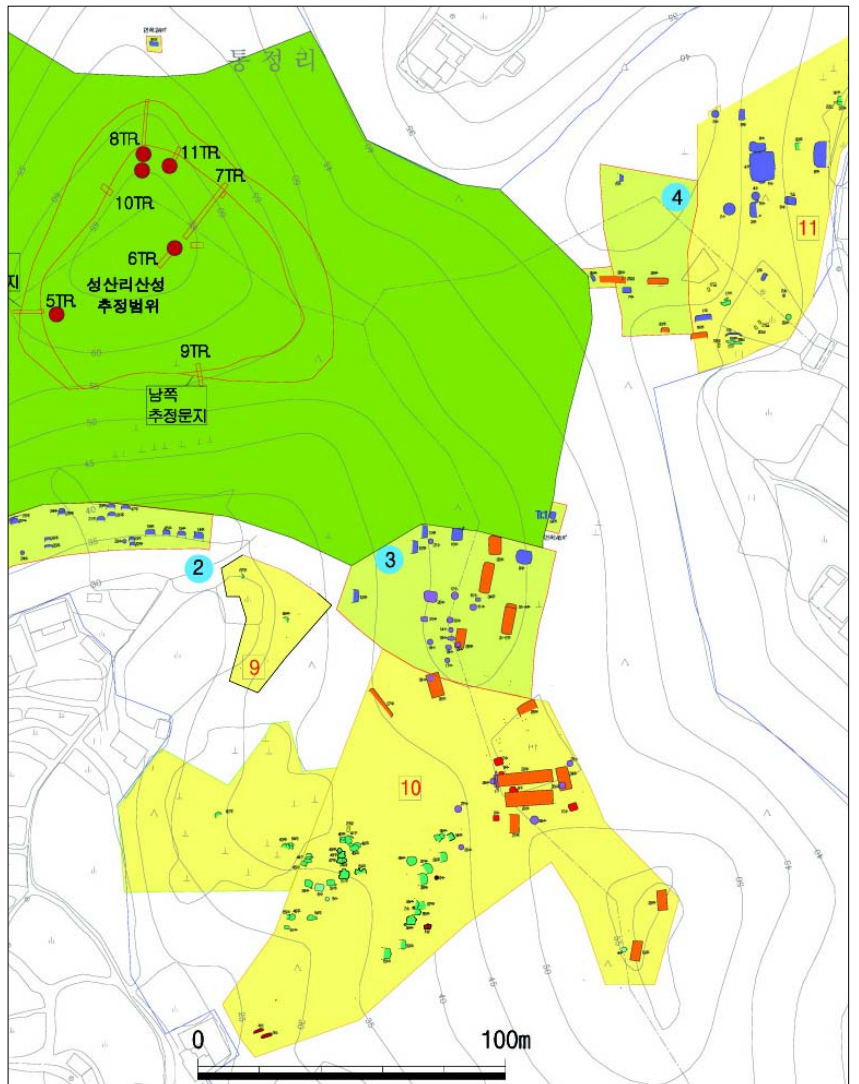
▲2지점 유구배치도(S=1: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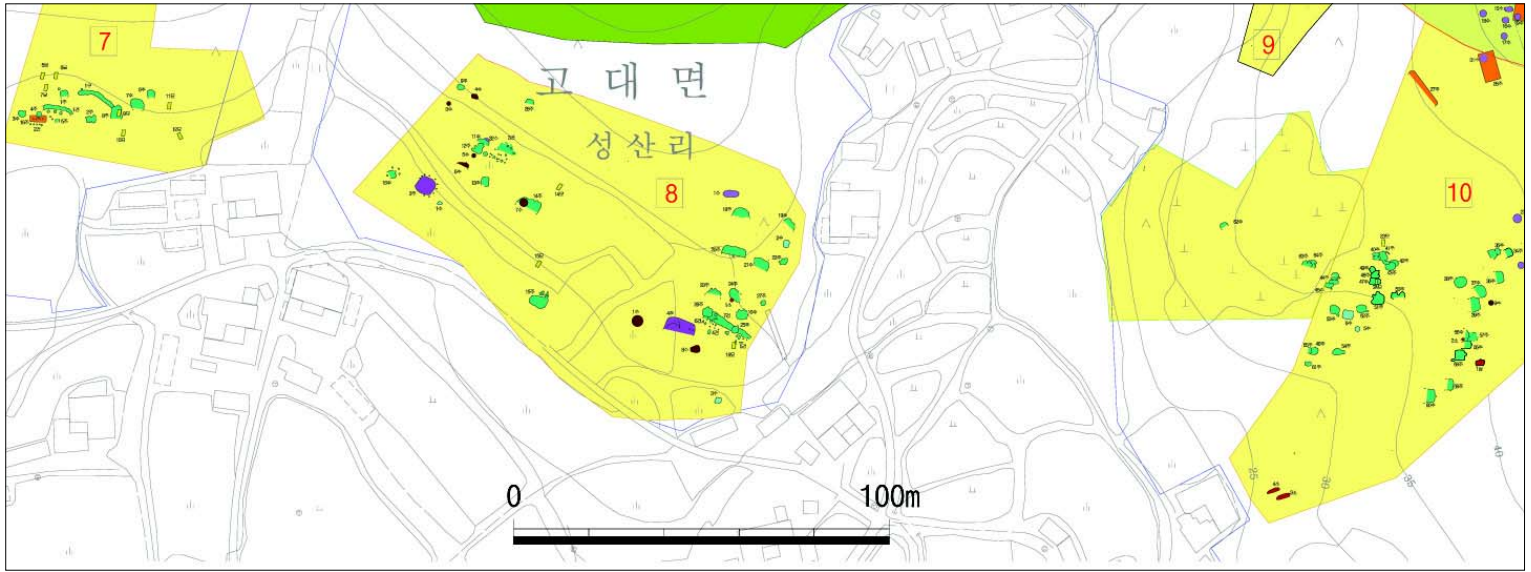
▲3-1지점 유구배치도(S=1:3,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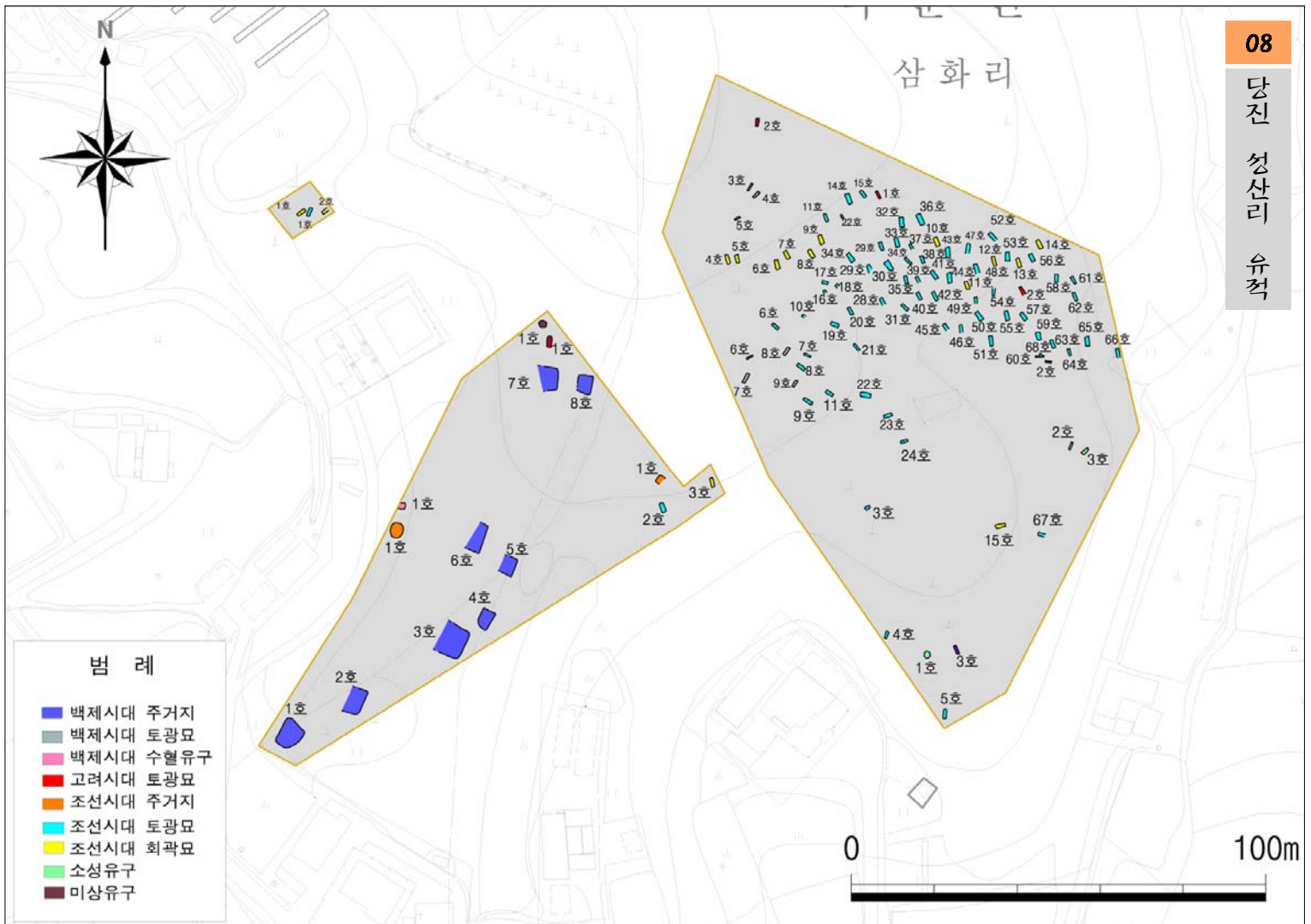
▲3-1지점 서쪽 유구배치도 세부(S=1:2,500)



▲3-1지점 동쪽 유구배치도 세부(S=1:2,500)



▲3-1지점 고려~조선시대 유구배치도 세부(S=1:2,000)



▲3-2지점 유구배치도(S=1: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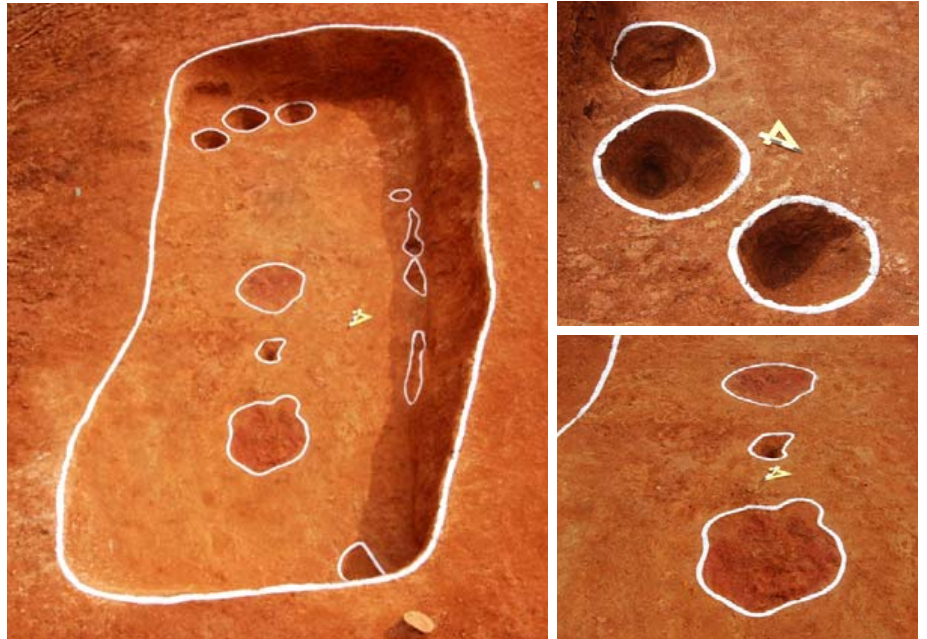
09

주거지

당진
첨산리
유적

주거지의 배치양상을 살펴보면 조사지역 내에 수직상으로 형성된 구릉의 능선부와 사면 일대에 주거지가 조성되어 유구 밀집도가 높은 편이다. 주거지는 대체적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조성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과 장방형으로 나누어진다. 주거지의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6호와 24호 주거지는 화재폐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주거지들은 대체적으로 자연퇴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7호 주거지



▲5호 주거지

내부시설은 노지와 저장공, 주공, 벽구, 소형의 구덩이 등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주거지의 바닥면에는 무시설식 또는 얇은 토광형 노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저장공은 주거지마다 1~3개씩 확인되어 (세)장방형 주거지 가운데 그 수가 적은편에 속한다. 저장공은 주로 주거지의 단벽가에 설치되었다.

유물은 공열문, 구순각목문이 시문된 무문토기 호, 발과 마연토기 등의 토기류가 확인되었다. 석기는 갈판, 양인석부, 석도, 일단경식 석촉, 이단병식 석검편 등이 확인되었다. 이외에 토제·석제 방추차도 출토되었다.



▲8호 주거지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 토기류 일괄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 석기류 일괄

수혈

일상적 거주가 어려운 소규모 유구들을 수혈로 분류하였는데,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산발적으로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방형과 원형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유구의 깊이는 퇴적토의 두께가 20~30cm 정도로 얇은 것과 50cm 이상의 깊은 것이 있다. 내부시설은 주로 바닥 중앙에 무시설식 노지가 1개씩 설치되어 있다.



▲1호 수혈



▲9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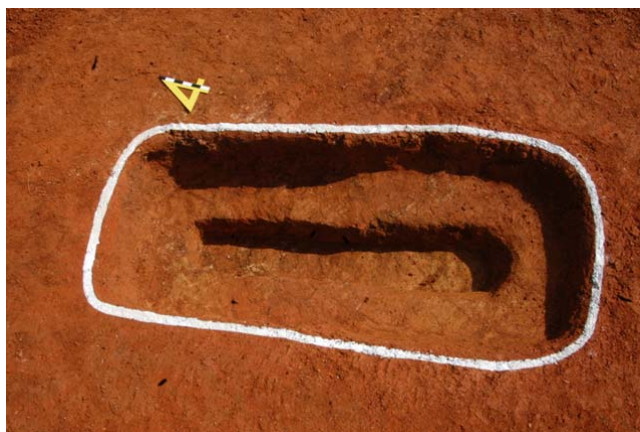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수혈 출토 유물 일괄

조선시대

토광묘

조선시대 토광묘는 총 8기가 확인되었다. 조사지역 내에 산발적으로 분포하나 주로 남쪽사면에 조성되었다. 주로 이단광식 토광묘로 확인되었다.

부장유물은 없으며, 인골 또한 출토되지 않았다.



▲4호 토광묘

1-2지점은 1-1지점의 능선에서 남서쪽으로 분지된 구릉 선단부의 남사면 일부에 해당한다. 시굴조사 당시 청동기시대 유적의 징후가 확인되었는데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9기, 수혈유구 6기, 총 15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1-2지점 내 유구의 양상과 출토유물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1-1지점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43호 주거지

▲47호 주거지



주거지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총 9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구릉 사면의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분포하는데, 장축방향이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도록 조성되었다. 1-1지점과 마찬가지로 유구밀집도가 높은 편이나 43호(先)와 23호 수혈(後)의 중복관계를 제외하면, 유구 간의 중복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39호, 40호, 43호 주거지는 수목 식재로 인하여 일부분 교란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장방형이다. 주거지 내부의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갈색 및 암갈색계의 사질토로 자연퇴적된 양상을 보인다. 내부시설은 노지, 주공, 벽구, 저장공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마다 복수의 노지가 설치되었으며, 주공배치의 정형성이 확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장공은 주로 벽가에서 0~3기가 확인되었다.

유물 출토양상을 살펴보면 43호 주거지와 45호 주거지에서 집중적으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대형의 호형토기, 대·중·소형 발형토기, 다량의 무문토기편이 확인되었으며, 석기는 양인석부, 유헤구 석검편, 이단경식석촉, 주형석도 등이 출토되었다.



▲45호 주거지



▲1-2지점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 석기류 일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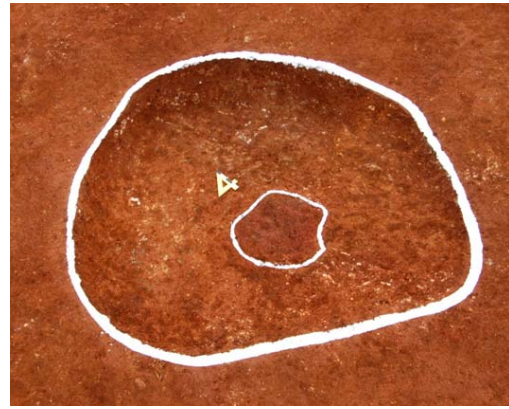
▲1-2지점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 토기류 일괄

수혈

수혈은 총 6기가 확인되었다. 대부분 주거지가 조성되지 않은 곳에 군집을 이루어 위치한다. 21호 수혈은 청동기시대 43호 주거지의 북동쪽 모서리를 일부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과 원형으로 나누어진 다. 깊이는 20~30cm 내외로 얕은 편이며, 사면의 침식과 삭평으로 인하여 유구의 잔존상태가 좋지 않은데, 21호 수혈만 1m 정도로 깊은 편이다. 내부시설은 바닥 중앙에 노지를 설치하였거나, 아무 시설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주거지에 비해 매우 빈약한 유물출토량을 보이는데 1-1지점 수혈유구와 비슷한 양상이다. 유물은 소량의 무문토기편과 석재편이 확인되었다.



▲26호 수혈



▲1-2호 수혈 출토유물

2지점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4호 주거지

주거지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총 4기가 확인되었는데, 확인된 주거지의 수는 많지 않으며, 능선 정상부의 날등을 따라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경작지 조성 등으로 유실이 심해 잔존양상으로 정확한 형태와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사결과 평면형태는 대체로 장방형일 것으로 판단되며, 내부시설로는 무시설식 노지가 확인되며, 소형의 저장구멍이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빈약한 편으로 주거지 바닥에서 무문토기편과 반월형 석도 등이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일괄

분묘

2지점 능선의 사면부 일대에서 고려시대 토광묘 1기와 조선시대 토광묘 4기 등 모두 5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이며, 크게 일단광식과 이단광식 토광묘로 구분된다. 출토유물은 고려시대 토광묘에서 토기병 1점이 확인되었다.



▲고려시대 1호 묘 출토유물



▲고려시대 1호 묘



▲조선시대 1호 묘

주거지

조선시대 주거지는 대체로 말각방형 또는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주거지는 발경작지, 주거용 가옥 조성 등으로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였는데 특징적으로 내부를 동-서 방향으로 2분하여 남쪽을 북쪽 구역에 비해 약 20cm정도 깊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바닥면은 대체로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내부 중앙의 단이지는 부분에 판석형 할석 등을 이용하여 아궁이를 조성한 후 연도를 좌우로 나누어 굴광하고 동·서벽에 이르러 주거지의 벽을 따라 원을 그리는 형태로 북벽 중앙으로 모이게 하여 굴뚝을 조성하였다.



▲조선시대 1호 주거지



▲조선시대 3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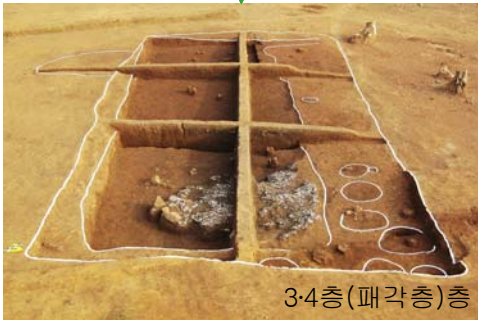
▲조선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일괄

주거지

주거지는 구릉 상부 전반에서 38기 조사되었다. 정상부 평탄면과 상단부 완사면에 밀집하여 조성되어 있으며, 중·하단부에 일부 위치한다. 대부분 단독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그 중 4호·14호 주거지는 장방형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 내부에 세장방형 주거지를 중복 조성하였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세장방형이며, 내부시설은 노지, 저장공, 주공, 벽구 등이 조사되었다.

노지는 바닥면을 타원형으로 굴광하거나 상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대체로 주거지의 장축선상 중앙에 조성되어 있다. 저장구덩이는 모서리와 장벽의 중앙부 등에 2~7여개 정도 설치하였으며, 8호 주거지 저장구덩이 내부에서는 정치되어 있던 토기가 주저앉은 채로 확인되었다. 주공은 주거지의 장벽을 따라서 배치하였고, 장축선상에서도 확인된다. 벽구는 장벽을 따라서 'ㄱ', 'ㄴ'형으로 설치하고 단벽을 거쳐서 외부로 돌출되는 배수로와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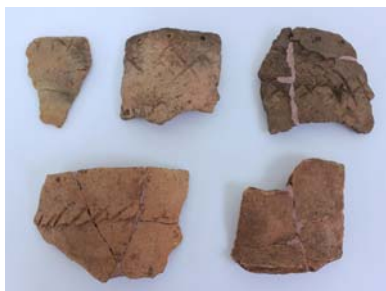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공렬문·공렬문+구순각목문 호형토기·발형토기, 대각 등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석기류는 반월형·주형 석도, 석부, 석검, 유경식 석촉, 방추차 등이 확인되었고,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석도, 석촉 등의 반제품과 박편이 다량 출토되었다.



▲4-1-4-2호 주거지 조사과정



▲4-1-4-2호 주거지 퇴적층 및 패각층 양상



▲3층 출토유물



▲3층 내 석기제작 양상



▲패각층(4층) 출토유물



▲5층 출토유물



15

당진
성산리
유적

▲청동기시대 23호 주거지는 평면형태 세장방형으로 조성하였고, 장축 중심에 나란히 노지를 설치하였다. 노지 사이에는 주공이 각각 1개씩 자리하며, 북장벽 하단부에서도 주공과 저장구덩이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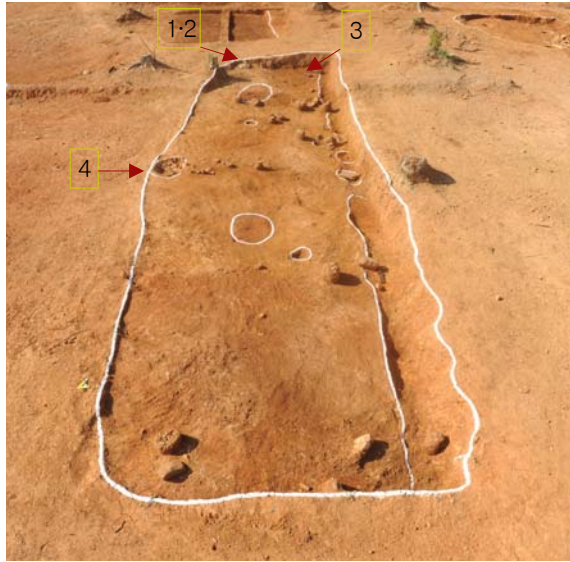
5호 주거지



24호 주거지



26호 주거지



▲청동기시대 34호 주거지 석재 원석을 걷어낸 하부와 주변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석기 박편이 출토되었다.

- 1:원석 노출상대
- 2:원석 제거 후 박편
- 3:석검 반제품 및 박편
- 4:저장구덩이 내 무문토기



34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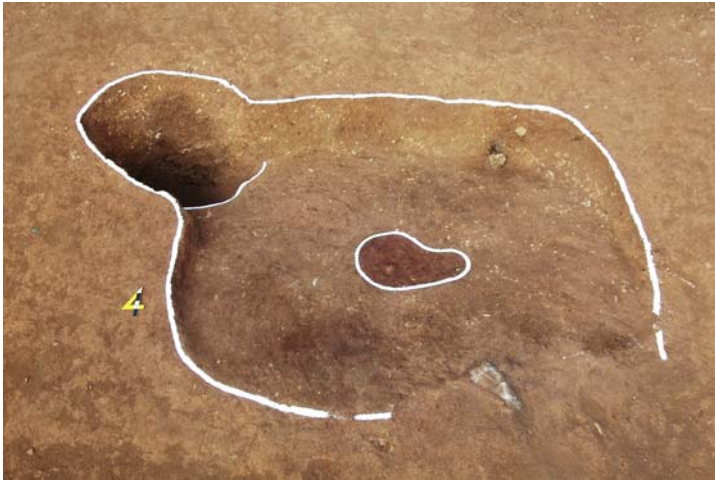
수혈

정상부 평탄지에서 10기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중복된 2기를 제외하면, 주거지와 5~8m의 거리를 두고 단독으로 조성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말각방형·타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164~286m이며 최대 잔존 깊이는 60m이다. 1·2·3호 수혈 내부에서는 노지가 설치되었다. 노지는 수혈의 중앙에 위치하며, 편평한 바닥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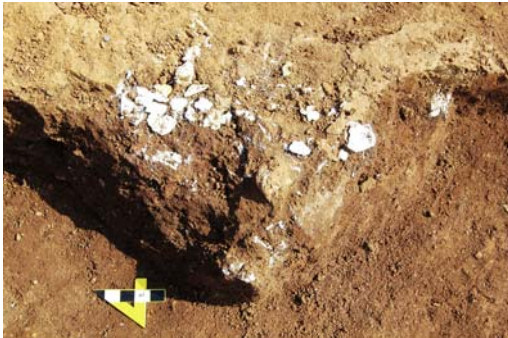
유물은 소략한 편이며, 발형토기, 공렬+구순각목 토기편, 저부편 등과 유경식 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 1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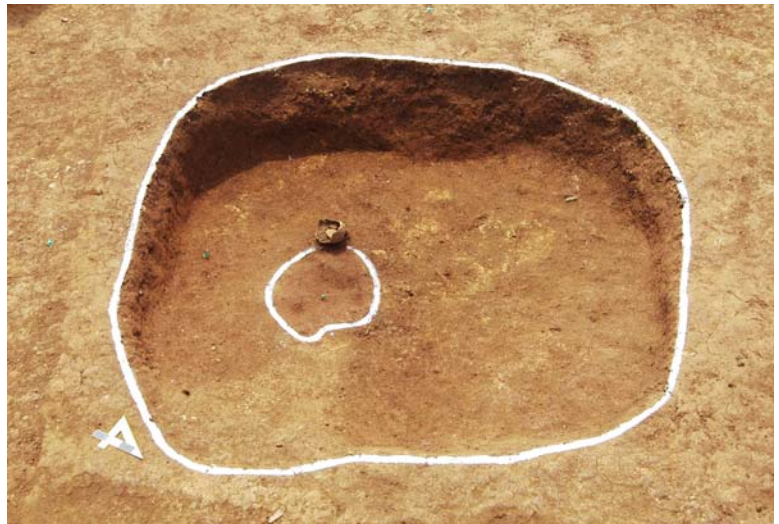
▲3호 수혈 상부 퇴적층에서는 패각과 암갈색 사질점토가 ▲4호 수혈 함께 퇴적된 패각층이 확인되었다.



▲3호 수혈 내부 패각층

▲청동기시대 수혈 출토유물 일괄

▲10호 수혈 출토유물



▲6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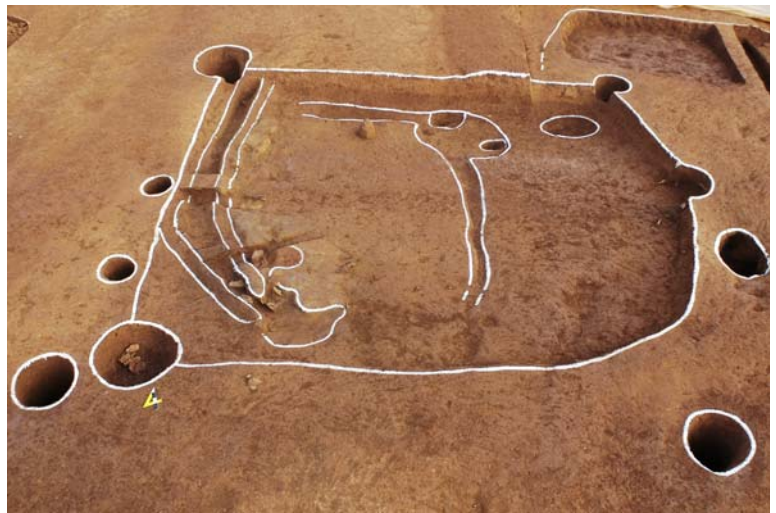
▲10호 수혈

원삼국시대 유구는 5구역과 8구역의 남쪽사면 하단부에 자리하며, 주거지 4기와 수혈 1기, 구상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

평면 형태는 방형 및 오각형으로 조성하였고,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부뚜막시설, 연도부, 벽구, 주공, 저장구덩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설들은 1·4·5호에서 주로 파악되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호 주거지에서는 동벽에 하단에서 소형 노지 정도만 조사되었다.

유물은 주거지 내부 아궁이 바닥면, 벽구, 저장구덩이에서 태격자+승문타날 장란형토기와 승문타날 심발형토기 및 용도미상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1호 주거지



▲1호 주거지 부뚜막

원삼국시대 1호 주거지는 5구역의 남쪽 사면 하단부에 조성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오각형이다. 주거지의 서벽을 따라서 평면 형태 'ㄴ'자형의 부뚜막을 설치하였다. 부뚜막 상부에 퇴적된 녹갈색 사질점토층을 일부 걷어 내자, 부뚜막 주변으로 경화된 녹갈색 점토층의 범위가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녹갈색 점토를 사용하여 부뚜막과 아궁이 벽을 지속적으로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 내부 남-서-북-동 모서리 부분에는 저장구덩이를 각각 조성하였고, 주거지 외곽을 따라서 주혈 8개를 일정하게 설치하였다.



▲3호 주거지



▲3호 주거지 부뚜막

원삼국시대 3호 주거지는 8구역의 남쪽 사면 하단부에 조성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방형이다. 주거지의 서벽을 따라서 평면형태 'ㄷ'자형의 부뚜막을 설치하였다. 연통부와 이어지는 북서모서리 바닥면은 다른 곳 보다 좀 더 높은 편이다. 주거지 내부에는 네 벽을 따라 벽구를 조성하였다. 바닥에서는 동-서쪽으로 대칭을 이루며 주공 4개가 조사되었다. 주거지 내부에는 풍화암반 부스러기가 섞인 황갈색 사질점토를 다져서 벽구 안쪽으로 평면형태 방형에 고리형을 띠는 평탄한 段을 설치하였고, 그 상면 모서리 부분에 각각 주공을 배치하였다. 주거지 외곽을 따라서도 나란히 주혈 9개가 더 확인된다.



▲ 법면 2구역 백제시대 취락 전경



▲ 14호 주거지

부뚜막은 서단벽을 따라서 자리한다. 생토벽을 그대로 굴광해서 부뚜막 벽을 조성하고, 석재를 혼용하여 점토를 덧발라서 보완했다. 부뚜막 상부에는 판석형 석재와 세장한 석재를 가로로 올려놓은 후 점토를 발랐고, 전체적으로 터널형의 연도를 마련하였다. 연통부는 북서 모서리를 바깥쪽으로 10cm 정도 평면 형태 반원형으로 내어 팠다.

주거지

총 35기가 조사되었고, 성산리 산성의 남쪽 사면부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평면 형태는 방형이며, 사면 하단부쪽 벽은 삭평에 의해 대부분 유실되었다.

내부에서는 부뚜막, 주공, 벽구 등의 시설이 확인되었다. 부뚜막은 점토만 사용한 형태, 암반을 원하는 형태로 굴광하여 점토+석재를 혼용하는 형태, 점토+석재만을 사용하는 형태 등 다양하게 조성되었다. 아궁이 안쪽에서는 지각석과 자비용기로 사용된 장란형토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장란형토기, 시루, 경질타날문토기, 사족기, 고배, 개, 경질완 등의 토기류와 지석 등의 석기류 및 철도자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 16호 주거지 조사과정



◀백제시대 16호 주거지 부뚜막

부뚜막은 평면 형태 'ㄴ'자 형태로 생토 층인 풍화암반층을 바닥보다 높여서 굴광하였다. 북장벽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조성하였으며, 연통부는 주거지 윤곽선에서 사면 상부로 60cm 정도 세장하게 내어 팠다. 연도는 풍화암반을 2줄로 파서 조성하였으며, 연도 상면에는 판석형 석재를 나란히 올려놓았다. 아궁이 전면에서는 붓돌 1매가 잔존하고, 안쪽 바닥면에는 자비용기로 쓰인 파수부 시루가 세워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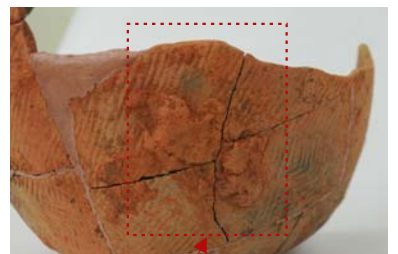
▲16호 주거지 부뚜막



▲16호 주거지 출토유물



▲20호 주거지 부뚜막



▲20호 주거지



▲20호 주거지 출토유물

19

당진
성산리
유적



◀▶ 백제시대 26호 주거지

삭평과 27호 주거지의 교란에 의해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노지가 2곳 정도에서 관찰되며, 유물은 장란형토기, 완, 사족기가 출토되었다.



▲26호 주거지 유물출토 상태



▲▶ 26호 주거지 출토유물

수혈

법면 3구역에 해당하는 태산의 남동쪽 구릉 상부 일대에 15기 정도가 집중되어 있고, 유적 전반에서는 모두 34기가 확인되었다.

수혈의 평면 형태는 원형, 방형이고, 단면형태는 플라스크형(복주머니형)과 U자형이다. 특히 평면 원형에 단면 플라스크형 수혈의 경우 벽체 대부분이 붕괴되었다. 따라서 기존벽면은 주로 하부쪽에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수혈 내부 퇴적토 상에서는 이러한 벽체붕괴양상이 잘 관찰된다.

유물은 퇴적층 내부와 바닥면에서 타날문 경질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법면 3구역 백제시대 수혈군 전경

21

당진
쌍산리
유적



▲▶ 7호 수혈 및 출토유물



▼백제시대 11호 수혈 층위

풍화암반 덩어리와 부스러기가 혼입된 벽체붕괴토가 전면에서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최상층에는 동시기 수혈 내부 퇴적층에서 주로 확인되는 암회갈색 사질점토층(재+숫)이 U자형으로 퇴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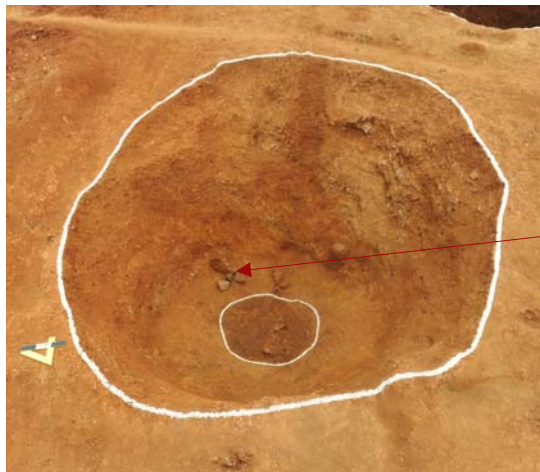
▲ 11호 수혈



▲ 18호 수혈

▶백제시대 21호 수혈 및 유물

평면 형태는 다수의 수혈과 동일하나 단면 형태 U자형으로 조성되었다. 바닥면에는 얇게 소토와 숫이 다량 혼입된 암적갈색 사질점토층이 퇴적되어 있었고, 이를 제거하자 바닥면 중앙에서 소혈이 확인되었다. 수혈 벽의 경사가 가장 완만한 남동벽면에서는 굴지구흔이 3곳 정도에서 관찰되었다.



▲▶ 21호 수혈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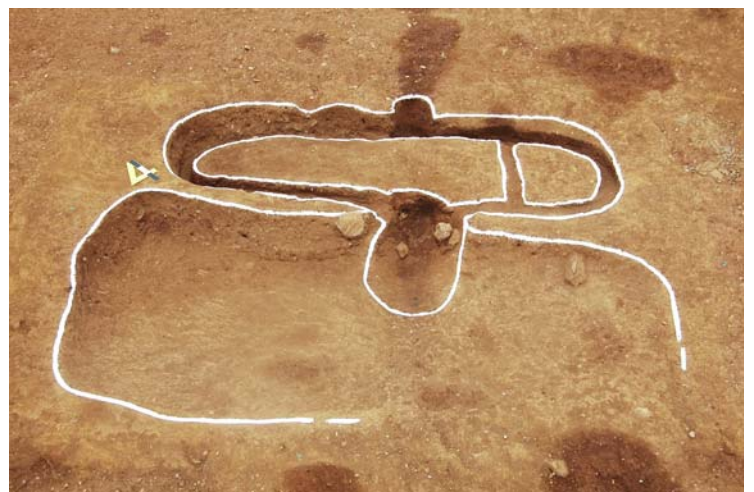
■ 조선시대 생활유구의 입지

: 이전 시기 유구가 구릉 상부에 자리한 것과 달리, 조선시대 생활유구는 남쪽 곡부 사면부 양안에 밀집되어 있다. 주거지 31기 정도가 모두 이 부분에 조성되었으며, 일부 주거지는 2~4기 씩 중복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고려~조선시대 유구는 고려시대 분묘 1기와 조선시대 건물지 5기·주거지 67기·소성유구 4기·삼가마 1기·수혈 4기·구상유구 2기·분묘 28기 등 112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온돌의 유·무 및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2호·9호·13호·15호 주거지 등은 생토를 그대로 파서, 아궁이 전면부 공간보다 온돌시설을 높게 설치하여, 경사 상단부를 돌출된 구조로 조성하였다. 1호·3호·6호·26호 주거지 등은 벽에 붙여서 붓돌과 이맷돌을 세워 화덕을 마련하였다.



▲ 조선시대 35호 주거지는 아궁이 전면부를 편평하게 조성하고, 북서벽 중심에 설치한 아궁이의 북서쪽은 단을 높게 주어서 온돌시설을 설치하였다. 온돌시설의 평면형태는 장타원이며, 돌출된 연통부와 연결된다.

23

당진
성산리
유적



▶▶ 조선시대 1호 주거지는 바닥면 위에 석재를 세우고 상부를 덮는 방식으로 구들을 마련하였다. 아궁이는 평면 형태 타원형의 수혈식이며, 연통부는 아궁이와 일직선상인 북벽의 중앙에 자리한다. 아궁이와 동벽사이에는 동벽면을 활용하여 평면 형태 타원형의 수혈을 설치하였다.



◀ 조선시대 17호 주거지는 평탄면을 그대로 활용하여 구들과 아궁이 쪽이 단이 지게 굴광하였다. 특히하게 수혈의 북벽을 황으로 파서 풍화암반으로 구성된 천장부를 그대로 활용하였고, 아궁이와 구들 고래를 1쌍씩 각각 따로 조성했다.

▶ 조선시대 7호 주거지



▶ 조선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일괄



분묘

고려시대 유구는 분묘 1기가 범면 4구역에서 조사되었고 조선시대 분묘 28기가 유적 전반에서 확인되었다.



◀▶ 고려시대 25호 묘 및 유물 관정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목관을 사용하였다.



▶▶ 조선시대 5호 묘 및 출토유물



▶ 조선시대 분묘 출토유물 일괄



▲ 추가 법면구간 발굴조사 지역



▲ 추가 법면구간 발굴조사 지역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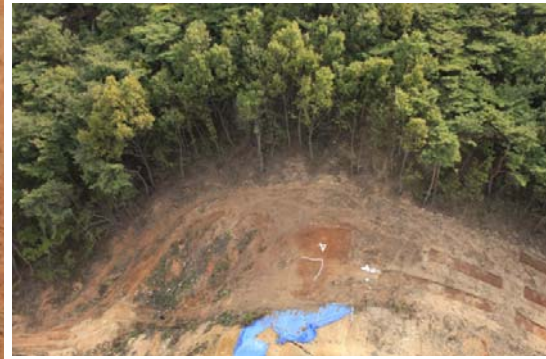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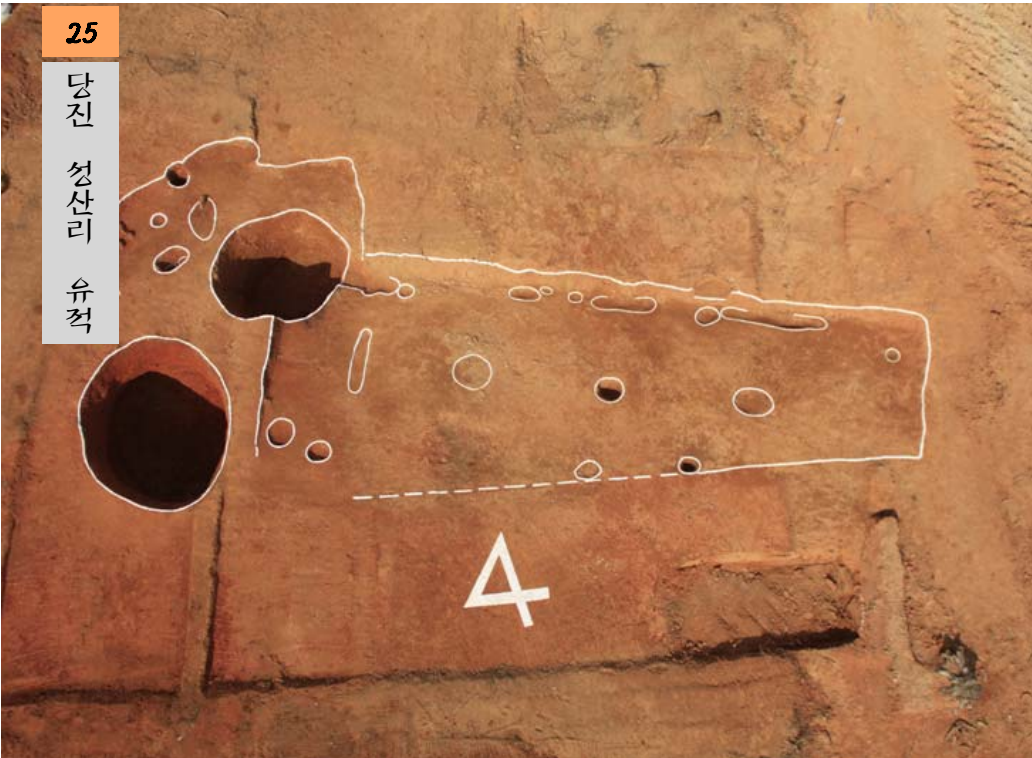
이번 발굴조사 지역은 석문 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지내에서 추가로 법면구간이 조성되는 지역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에서는 탐색트렌치를 통한 사전조사에서 청동기시대 및 백제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조사지역은 지형에 따라서 모두 3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첫 번째 구역은 기존 법면 3구역과 인접한 동쪽구릉 상부에 자리하며, 두 번째 구역은 법면 4구역과 연결된 능선상에 위치한다. 마지막 세 번째 구역은 구릉의 북쪽 선단부에 해당한다.

동쪽구릉 상부와 북쪽 선단부에는 각각 백제시대 주거지 1기 및 청동기시대 유물포함층이 자리하고, 능선부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 백제시대 주거지 1기 및 수혈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

25

당진
성산리
유적



▲청동기시대 유물포함층 전경

▲청동기시대 28호 주거지 전경



▲28호 주거지 조사완료 전·후

주거지

이번에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범면구간 4구역에서 조사 완료된 28호 주거지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28호 주거지는 범면구간 4구역의 경계부에 자리하여 기존 현장조사에서 미조사된 부분이 잔존해 있었고, 이를 이번 추가 범면구간 발굴조사를 통해 조사 완료하였다.

주거지의 북서 모서리는 백제시대 35호 주거지 및 34호 수혈에 의해 유실되었고, 사면 하단부쪽인 남장벽은 삭평에 의해 대부분 유실되어 바닥선만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중심축을 따라서 다수의 노지를 배치하였다. 사면 상단부쪽에 위치한 북벽 하단에서는 벽구가 확인되었고, 벽구와 노지 사이에는 주공을 조성하였다. 주거지의 서쪽에서는 장축방향과 수직으로 설치한 벽구와 저장구덩이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유물포함층은 북쪽 구릉 선단부에 자리한다. 퇴적층 상부에서는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 협소한 규모로 잔존하며, 퇴적층의 두께가 미약하여 기반암층이 곳곳에 노출되어 있었다.

▲청동기시대 유물포함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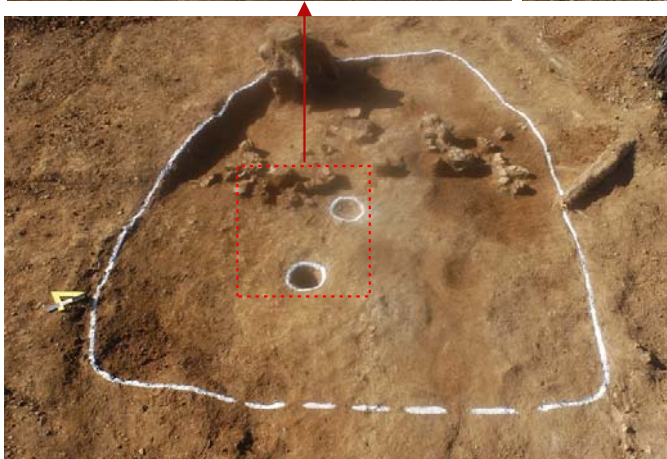


3-1지점에서 백제시대 주거지는 11지점 및 법면 2·3구역에서 보고되었다. 11구역 및 3구역에서 조사된 백제시대 주거지는 내부구조·출토유물 상에서 이번 조사완료분과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법면 2구역에서 조사된 백제시대 주거지와는 노지의 구조 등에서 수혈이 중복되는 등 다소 차이점이 발견된다.

주거지

백제시대 주거지는 2기가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중앙에서 벽쪽으로 치우친 부분에는 노지가 자리한다. 34호 주거지의 중심에서는 주공이 확인되었고, 35호 주거지에서는 벽주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경질호, 승문타날 장관형토기, 시루, 철부, 철검 등이 출토되었다.



▲ 34호 주거지



수혈

2기 모두 백제시대 35호 주거지 주변에서 확인되었다. 이중 34호 수혈은 백제시대 35호 주거지와 중복된 상태로 조사되었는데, 층위조사결과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35호 주거지



◀▲ 33호 수혈 및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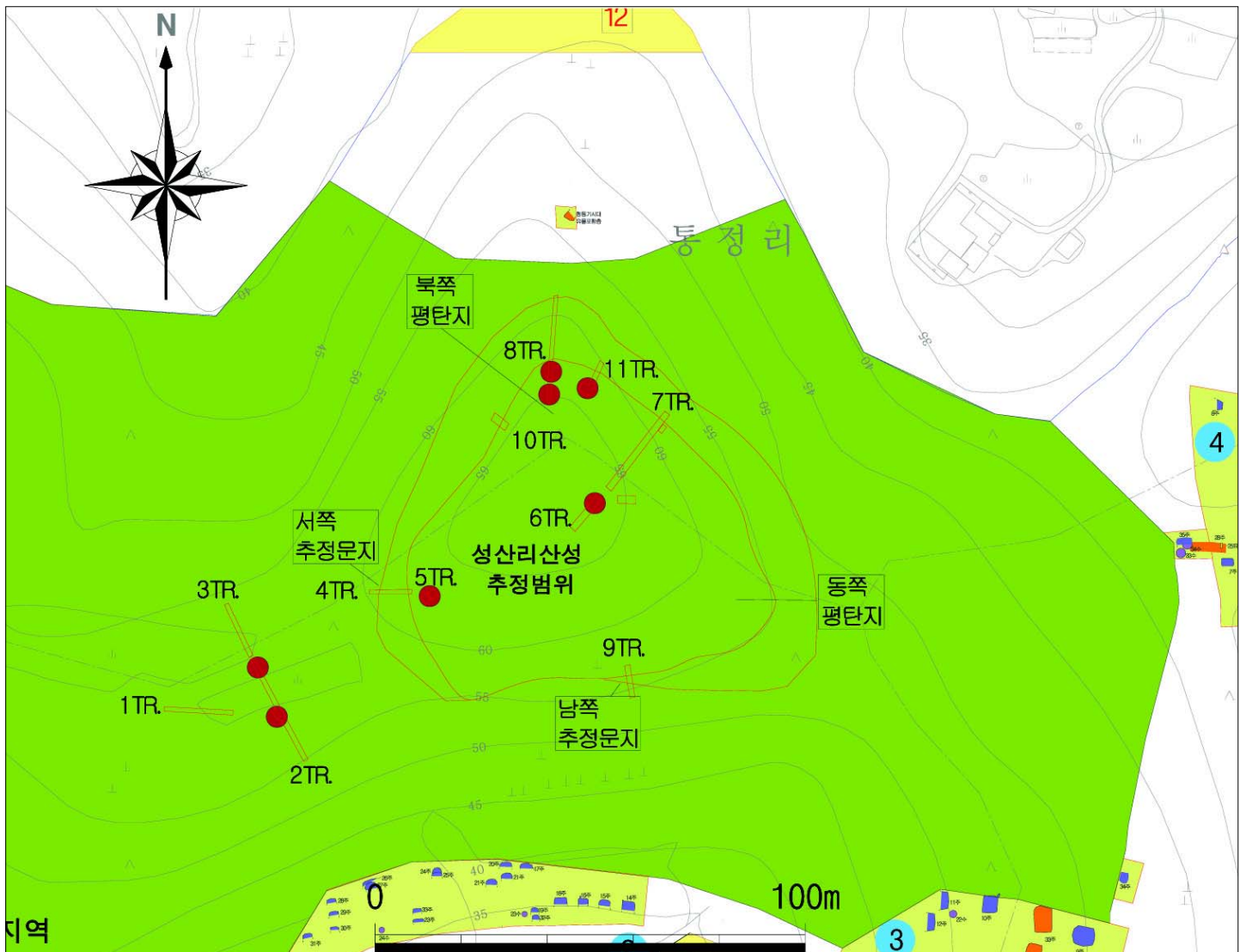


성산리 산성 표본조사 조사내용

▲성산리 산성 전경

성산리 산성은 성산리 유적 중심에 자리한 태산의 동쪽 고대지 일대에 해당한다. 이미 지표조사에서 성벽의 윤곽과 성내 평탄지의 존재가 보고된바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표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조사는 산성의 존재 여부에 초점을 두고 시작하였다. 이후 층위를 통해 산성의 존재가 명확히 파악된 다음에는 산성의 전체 범위와 규모를 확정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평탄지가 형성된 지역과 성벽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모두 11개의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성산리 산성 위치도(S=1:1,500)

본격적인 표본조사에 앞서 대략적인 산성의 범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릉의 서쪽부터 순차적으로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동쪽 고대지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서쪽 평탄지 주변 트렌치 설치과정
해발고도 59~61m 정도의 평탄지이며, 근래까지 밭경작지로 이용되어 왔다. 대상지역 주변 3곳에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였다.



▶ 1번 트렌치



▶ 2번 트렌치



▶ 2번 트렌치 내 유구

1번 트렌치는 평탄지와 서쪽 고대지가 연결되는 부분에 위치한다. 층위 상에서 산성의 구조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2·3번 트렌치는 남-북 방향으로 연결 설치하여 성벽의 존재와 축조 방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산성 구조물은 없었으며, 2번 트렌치 내부에서 경질타날문토기호 편이 다량 노출되면서 주거지 등의 유구가 2기 정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태산의 서쪽 평탄지에 설치한 탐색트렌치에서는 산성과 관련된 구조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평탄지 및 사면부를 따라서 백제시대 주거지로 구성된 취락유적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5번 트렌치 내 출토유물

태산의 동쪽 고대지쪽은 서쪽 밭경작지 주변보다 최대 8m 정도 높은 편이다. 또한 동쪽 고대지 주변으로는 지표상에서 성벽 상부로 추정되는 부분과 평탄대지가 3곳에서 관찰된다.

5번 트렌치는 동쪽 고대지로 연결되는 부분에 자리한 서쪽 평탄대지 상에 너비 2m 정도의 규모로 설치하였다. 트렌치 내부에서는 주거지와 뚜껑, 연질타날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 5번 트렌치



▲ 8번 트렌치 부근 북쪽 평탄지



▲ 동쪽 평탄지

성산리 산성 내부 평탄지는 8번 트렌치 부근 북쪽과 동쪽에서도 관찰된다. 위 전경은 해발고도 67m 정도의 고대지에서 내려다 본 것이다. 평탄지와 사면부가 연결되는 부분에는 성벽 상부가 돌출되어 있다. 성벽의 정확한 축조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북쪽 평탄지에서 성벽 사면 방향으로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였다.



▶▶ 8번 트렌치 설치 전·후
조사지역은 북쪽 평탄지 상부에서 북쪽 사면 하단부로 연결되는 성벽 구간에 해당한다.



▼ 8번 트렌치 내 성벽 층위

성벽은 점토와 사질점토 (부정형석재 다량혼입)를 교차해서 다져 넣는 방식으로 조성하였다.

기저부에는 성선과 평행을 유지하며 불규칙하게 석재를 깔아서 다짐층의 유실을 막는 동시에 기저부 윤곽선을 확정하였다.

토루 상부 다짐층 안·밖에는 1.2m 정도 높이로 석재를 쌓아 협축하여, 내부 토사의 유출을 막고 상부 성벽을 견고히 하였다.





▲8번 트렌치 성벽 중단부 다짐층

트렌치 내부에서는 기저부 바닥면쪽이 미약하게 단이 지는 것을 제외하면 'ㄴ'자형의 인위적인 지형 삭평흔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성벽 중단부에서는 수직으로 다져진 적갈색 점질층이 존재하므로 판측은 성벽 하단부 쪽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좁은 탐색트렌치 내부에서 판측과 관련된 영정주공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다짐층 하부에는 구상유구가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성되었으나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할 수 없었다.



▲7번 트렌치 내 성벽 상부 돌출부



▲11번 트렌치 내 성벽 상부 돌출부



▲남-북 평탄지 연결로

토루 안·밖을 석재로 보강한 흔적은 남쪽 평탄지 방향으로 설치한 7·11번 트렌치 내부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보강석축 내부 토루 다짐층에서는 목탄과 미세 소토가 관찰되므로 불다짐이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다짐 양상은 7·8번 트렌치 내부 층위에서 조사되었다.

문지는 평탄지가 위치한 동·서쪽에 설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은 모두 성벽 사면이 완만하고 낮아서 출입이 용이한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따라서 문지로 추정되는 부분에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현재 보강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유물은 8번 트렌치 협축 내부 다짐층과 석축 사이에서 경질타날토기 편이 출토되었다. 또한 북쪽 성내부 평탄지에 조성된 주거지에서는 연질토기 시루, 연질 타날문 호, 심발형토기, 주조철부 등이 노출되었다. 서쪽 평탄지에 설치한 5번 트렌치 내부에서는 경질무문토기 완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성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성 하부 외곽 둘레는 316m 정도이며, 성 상부 평탄지 둘레는 255m, 성 내부 면적은 4,483㎡ 정도이다.



▲서쪽 추정문지(4번 트렌치)



▲동쪽 추정문지(9번 트렌치)



▲북쪽 평탄지(8·11번 트렌치) 출토유물



▲8번 트렌치 석축 내 출토유물

주거지

3-2지점 조사결과 백제시대 주거지 8기와 토광묘가 9기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의 경우 화재에 의한 소실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주목된다.

주거지들은 3-2지점의 남-북 방향 능선 정상부를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화재폐기 주거지의 경우 주거지의 벽체로 쓰였던 판재형 목재들이 화재에 의해 바닥에 주저앉은 양상이 비교적 온전히 보존되어 있으며, 주거지 바닥에는 아궁이 잔존부와 연도, 연통시설 일부가 남아 있었다. 내부 퇴적토와 바닥에서 각종 토기편들과 석촉 등이 노출되었다.



▲1호 주거지



▲5호 주거지



▲백제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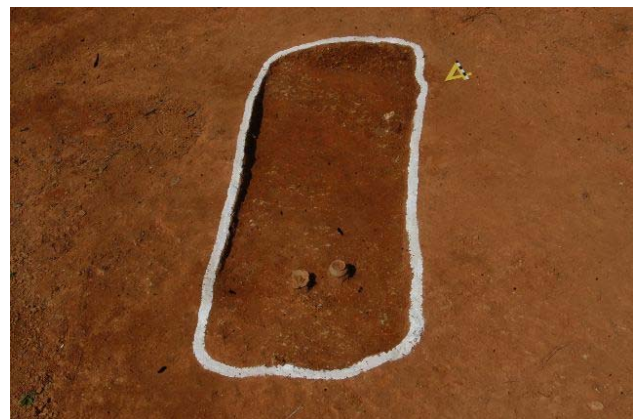
당진
성산리
슈척

토광묘

백제시대 토광묘는 3-2지점의 남-북 방향 능선 정상부를 기준으로 동쪽 사면부 상단에 분포되어 있으며, 등고선에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묘광은 일단광식으로 굴광하였고, 내부에 별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묘광 내부에서 고배 등 토기편과 용도미상의 철기 등이 확인되었다.



【사진 27】 3-2지점 백제시대 토광묘 출토유물



▲1호 주거지



▲2호 주거지

고려시대 토광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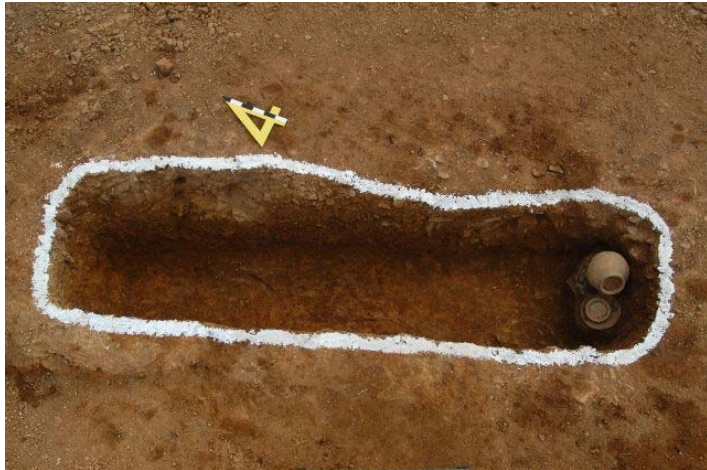
3-2지점 조사결과 고려시대 유구로는 토광묘가 3기 확인되었다. 능선 정상부에서 남동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능선의 사면 중단부에 분포하고 있다. 축조방식은 모두 일단광식이며, 요갱이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묘광의 바닥에서 유병, 청자접시, 청동합, 동곳, 청동수저, 판못 등이 출토되었다.



▲1호 토광묘



▲2호 토광묘



▲3호 토광묘



▲고려시대 토광묘 출토유물 일괄

조선시대 토광묘

조선시대 유구로는 주거지 2기와 회곽묘 15기, 토광묘 68기 등 분묘가 모두 83기 확인되었다. 이들 분묘들은 능선 정상부에서 남동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능선 사면부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 축조방식은 토광묘의 경우 이단광식과 일단광식으로 구분되며, 편방이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묘광의 내부에서 청동수저, 청동합, 백자대접, 구슬, 판못 등 다양한 종류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1호 토광묘

이번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이다. 당진 성산리 유적 일대는 지난 2008년1월 28일부터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시굴 조사와 발굴조사를 거쳐 현재 전체 유적에 대한 완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당초 발굴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녹지보존지역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서 백제시대 산성의 존재 및 취락의 전체 규모를 동시에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난 4년여 간의 정밀발굴조사 성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지점 : 청동기시대 주거지 49기·수혈 27기, 조선시대 무덤 8기 등 84기.

◆2지점 :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 고려시대 무덤 1기, 조선시대 주거지 6기·무덤 4기·구상유구 1기, 시대미상 수혈 4기 등 20기.

◆3-1지점 : 청동기시대 주거지 38기·수혈 10기, 원삼국시대 주거지 4기·수혈 1기·구상유구 1기, 백제시대 주거지 33기·수혈 34기·소성유구 2기·무덤 1기·산성 1개소, 고려~조선시대 이후 건물지 5기·주거지 67기·소성유구 4기·삼가마 1기·수혈 4기·구상유구 2기·무덤 28기, 시대미상 수혈 외 11기 등 247기.

◆3-2지점 : 백제시대 주거지 8기·무덤 9기, 고려시대 무덤 3기, 조선시대 주거지 2기·무덤 83기, 시대미상 수혈 2기·소성유구 3기 등 110기.

위와 같이 지형에 따라 4개 지점으로 구분한 조사지역에서 총 461기의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유구는 1·2·3-1지점에서 주거지 91기·수혈 37기 등을 비롯하여 124기에 달하는 유구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내부 중앙에서는 복수의 노지와 벽 하단부에서 주공 등의 시설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선문이 시문된 구순각목문+공렬문 발형토기 등의 호형토기와 발형토기를 비롯하여 많은 양의 석제품이 출토되었다. 석기는 유희구식 석검, 석부, 지석, 반제품을 비롯하여 석기제작과 관련된 원석 및 박편이 다량 노출되었다.

수혈은 평면형태 방형·원형 등으로 조성되었고, 평면 방형수혈 내부 바닥면에서는 노지가 확인되었다. 대부분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 자리하며, 유물은 공렬문 발형토기와 용도미상 석재, 석축 등이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 취락은 평탄한 구릉 상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면 중단부와 하단부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인된다. 전체적인 취락의 양상은 3개 지점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 지금까지 당진 지역에서는 자개리 유적, 기지시리 유적 등으로 대표되는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이 확인된바 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성산리 유적의 청동기시대 취락은 당진 지역에서 기 조사된 동시기 유적 중 가장 규모가 큰 전기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으로써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원삼국~백제시대 유구는 주거지, 수혈, 무덤, 산성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구는 모두 성산리 유적 3-1·3-2지점에 속하는 구릉 상부와 사면부에서 확인되었다. 원삼국시대 유적은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구릉 하단부 저평지에 자리하고, 백제시대 유적은 경사도가 급한 사면부와 저구릉 상부에서 확인된다. 이중 유구의 빈도가 높은 백제시대 취락과 산성의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거지 내부에는 부뚜막 및 노지, 주공을 설치하였다. 유물은 경질 호와 장란형토기, 뚜껑, 기대, 고배, 사족기 등의 토기류와 철정, 철부가 출토되었다. 백제시대 주거지는 구릉 상부 보다는 사면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면 하단부쪽 벽은 삭평에 의해 대부분 유실되었다.

수혈은 범면구간 2구역과 3구역에 집중되어 있고, 3-1지점 11구역에서도 조사되었다. 수혈 인근에 백제시대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락에 종속된 저장시설로 판단된다. 향후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수혈이 집중 조사된 주변 유적들과 비교검토가 요구된다.

무덤은 토광묘 3-1지점에서 1기, 3-2지점에서 9기가 조사되었다. 토광형으로 조성되었고, 주구가 설치된 사례도 있다. 고배 등이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기 조사된 백제시대 주거지에 종속된 무덤군으로 판단된다. 전체 백제시대 취락의 규모와 비교할 때, 무덤군의 규모가 매우 소략한 편이다.

산성은 3-1지점에서 해발고도가 최대 67m 정도로 가장 높은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다. 평탄지 주변으로 설치한 탐색트렌치 내부 층위 상에서는 성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짐층과 협축시설이 확인되었다. 당진과 접한 아산만의 북쪽에는 백제시대 성으로 알려진 길성리 토성, 소근산성, 운평리성, 태봉산성 등이 위치한다. 또한 동쪽 천안 일대에서는 백석동 토성이 발굴조사 되었다. 남쪽 인근에 자리한 우두산성과 태성산성이 백제시대 성으로 알려져 있으나,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표수습유물을 근거로 연대가 비정되고 있어, 이 부분은 향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조선시대 이후 유구는 주거지·수혈유구·소성유구·무덤 등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성산 상부에 조성된 수혈유구 1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선시대 유구는 모두 사면 하단부 저평지와 곡부 양안에 밀집되어 있다. 유물은 분청사기, 백자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주거지 내부에는 다양한 구조의 온돌시설을 조성하였다. 온돌은 암반층을 그대로 파서 고래를 설치하거나, 석재를 사용하기도 하고, 온돌구조 없이 벽에 석재 몇 매를 세워서 화덕을 마련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사·난방시설을 조성하였다.